

투석치료를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의 수면장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¹

한승엽, 강미정, 황은아, 박성배, 김현철, 조용원¹

목적: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주간 졸음,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등의 수면장애가 흔하며 이러한 수면장애는 환자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수면장애의 유병률과 수면장애의 유형을 알아보고 투석방법에 따른 수면장애의 빈도와 유형, 관련 인자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유지 투석치료 중인 혈액투석 환자와 복막투석 환자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주간 졸음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Stanford sleepiness scale과 Epworth sleepiness scale, 수면의 질을 알아보기 위한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한 질문과 우울증을 알아보기 위한 Beck depression inventory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환자는 혈액학적, 생화학적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50.6세였고 남자가 97명, 여자가 103명이었다. 복막투석 환자군이 나이가 많고 여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BMI, Hb이 높았고 혈압, BUN, creatinine, ferritin 등은 낮았다. 200명의 환자 중 56%가 poor sleeper였고 35%가 insomnia를 가지고 있었다. 복막투석과 혈액투석 환자간의 수면장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주간 졸음은 복막투석 환자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불면증,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는 군에서는 유의하게 우울증의 빈도가 높았으나 다른 인자들의 차이는 없었다. 복막투석 환자에 있어서 불면증은 우울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혈액투석 환자에서는 불면증은 우울증, 평균혈압, BMI와 관련성을 보였다.

결론: 투석치료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수면장애가 흔하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간의 수면장애의 빈도나 유형은 유사하나 환자들의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므로 우울증과 수면장애의 치료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